

스페인어 차용어의 운율적 제약 현상*

이수열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수열(2018), 「스페인어 차용어의 운율적 제약 현상」, 이베로아메리카연구, 29(2), 157-181.

초 록 본 연구는 스페인어에 차용된 영어 어휘들의 운율 구조를 파악해보고 이들 어휘들이 스페인어로 차용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운율적 특징들을 분석해 본다. 한 언어가 다른 언어로부터 어휘를 차용하는 경우 근원어의 운율적 특징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고, 또한 차용 언어의 운율적 제약에 따라 근원어의 어휘가 지닌 운율적 특징들이 상실되거나 변화도 겪게 된다. 스페인어가 영어로부터 어휘를 차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음운적 변화들 가운데에는 모음 삽입, 자음 탈락 현상 등이 있으며 이러한 변화 과정을 겪으면서 음절 구조의 변화도 야기 시키고 결국에는 강세의 이동 같은 운율 구조도 변화가 일어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모국어인 스페인어의 제반적 운율 구조 특징을 밝혀보고 차용어들이 차용되는 과정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운율 구조의 변화를 분석해본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스페인어 차용어에 적용될 수 있는 차용어 음운부의 존재 여부를 밝혀보고 차용시기가 오래되어 이미 스페인어에 완전히 귀화된 어휘들이 겪는 운율 구조 변화 현상이 아직은 외래어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어휘들에게도 적용 가능한지를 밝힌다.

핵심어 스페인어 차용어, 스페인어 차용어 음운론, 스페인어 차용어 운율 구조, 스페인어 차용어 강세 체계

* 이 논문은 2015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 2015S1A5B5A07042883).

I. 서론

본고에서는 영어에서 스페인어로 차용된 어휘들의 운율 구조를 분석해 보고 차용된 어휘들의 운율 구조와 스페인어의 운율 구조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차용된 어휘들에서만 나타나는 운율적 알고리즘을 파악해본다. 그리고 모국어인 스페인어의 운율 제약 현상이 차용어에서도 적용되는지를 밝혀본다. 차용어라는 어휘는 ‘외래어’와 같은 말로 체계가 다른 언어에서 빌려온 단어를 지칭한다. 이러한 차용어들은 그 차용된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단계로 구분된다(두피디아 인터넷 판):

- ㄱ. 귀화어: 차용된 뒤 오랫동안 쓰이면서 완전히 고유어에 동화된 단계: 네델란드어에서 차용된 한국어의 고무(gomu), 이탈리아어에서 차용된 스페인어 스파게티(espagueti).
- ㄴ. 차용어: 아직 고유어로 완전히 익지는 않고 외국어 의식이 약간 남아 있는 단계: 영어에서 차용된 한국어의 타이어(tyre), 영어에서 차용된 스페인어 위스키(güisqui).
- ㄷ. 외래어: 아직도 외국어와 다름없이 생소한 느낌이 있는 단계: 독일어에서 차용된 한국어의 아르바이트(arbeit), 영어에서 차용된 스페인어 트위터(tuit).

일반적으로 차용어들은 모국어 음운 특징과 구분되는 고유한 외래어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차용어들은 이러한 근원어 고유의 음운적 특성을 상실하고 모국어의 음운 구조에 맞게 그 구조가 변화되는 동화 과정을 겪게 된다. 스페인어 ‘video’ /bideo/는 영어 /vídeo/에서 유래되었다. 이 어휘의 운율 구조를 보면 근원어인 영어의 경우 첫 번째 음절에 강세가 부여되었다. 그리고 스페인어로 차용되면서 /bideo/에서 /bidéo/로 강세의 이동이 이루어졌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스페인어의 운율 구조에 따라 마지막 /eo/는 이중 모음을 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e-o/로 음절이 나누어지고 따라서 스페인어 강세 규칙에 의해 마지막 두 번째 음절, 즉 /e/에 강세가 부여된다. 근원어인 영어의 경우에는 음절 구조가 /vi-deo/

[vídju]로 2음절 어휘였지만 차용되면서 스페인어로의 동화 과정을 거쳐 3음절 어휘로 변화를 겪는다. 하지만 이 어휘는 일부지역에서는 동화 정도가 덜하여 근원어의 운율 구조를 유지하면서 /bideo/로 통용되고 있다. 즉 위의 과정 중 두 번째 단계인 차용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며 차후에는 완전한 귀화어로의 동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차용어들이 보여주는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도 스페인어에 아직 동화되지 않은 단어들이 모국어에 완전히 동화되어 귀화어의 단계에 해당될 경우 어떠한 진행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차용어로 정착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모국어인 스페인어의 음절 구조와 강세 그리고 그들 간의 운율적 구조 관계를 살펴본다. 그리고 스페인어 음운부와 차용어 음운부에서 각각 동일하게 또는 다르게 나타나는 제반 음운 현상들, 특히 음절과 강세에 관련된 현상들을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실버만(Silberman 1992)이 주장하는 모국어의 음운부와는 구별되는 차용어만을 위한 독립적인 음운부의 존재가 스페인어 차용어에도 도입 가능한지를 분석해보고, 차용어들의 운율 특징이 모국어인 스페인어의 운율 구조에 따라 형성되었는지를 파악해 본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영어 차용어들은 현대 스페인어에서 사용되는 차용어로 스페인 왕립 한림원 사전(Diccionario de la Real Academia Española 2001)에 포함된 어휘를 기준으로 다양한 언론 매체에서 다루는 어휘를 포함한다. 이들 어휘들은 스페인어에서 *anglicismo*, *estadounidismo*라는 용어로 알려져서 사용되고 있다.

II. 모국어 운율 구조와 근원어 운율 구조 차이

1. 모국어(스페인어)의 운율 구조

스페인어에서 강세 관련 운율 구조를 파악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분석되어야 할 것은 음절 구조에 관련된 것이다. 기타 로망스어처럼 스페인어에서 강세는 경음절(*silaba ligera*) 보다는 중음절(*silaba pesada*)에 위치하려는 경향이 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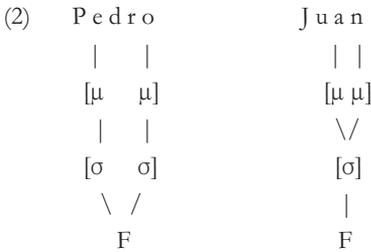
하다(Roca 1999). 이는 라틴어의 운율 관련 흔적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라틴어에서의 강세 규칙은 단어 마지막 두 번째 음절이 중음절일 경우 -음절이 자음으로 끝나거나, 장모음(vocal larga)을 포함하는 경우- 강세는 마지막 두 번째 음절에 부여되고, 마지막 두 번째 음절이 경음절일 경우 -음절이 단모음(vocal corta)으로 끝나는 경우- 강세는 단어 마지막 세 번째 음절로 이동 한다.¹⁾ 이러한 라틴어의 운율적 특징의 영향으로 스페인어를 포함한 제반 로망스어들은 음량 상관어(lengua sensible a la cantidad silábica)로서 강세는 일반적으로 단어 마지막에 위치한 중음절에 위치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중음절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마지막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음절에 위치하는 특징을 보여준다(Harris 1983; Roca 1999).

이러한 강세가 음절 구조와 갖는 상관관계로 먼저 스페인어의 음절 구조 특징을 살펴본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강세는 중음절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먼저 스페인어 중음절의 운율적 특징을 분석해 본다. 보편적으로 음절 구조 중 각운(rima) -음절의 핵(núcleo)과 말음(coda)의 결합형- 의 내부 구조가 두 개 이상의 음운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중음절이라 정의 내린다. 즉, 각운이 장모음을 포함하고 있거나(VV), 혹은 단모음과 자음 결합형(VC) 일 경우 중음절로, 하나의 음운(V) 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경음절로 분류한다. 이를 모라(mora)이론에 근거하여 음절의 무게를 정의 내리면 중음절(σP)은 두 개의 모라로 구성되어있지만, 경음절 (σL)은 하나의 모라로 이루어져 있어서 (Hyman 1985; McCarthy and Prince 1986; Hayes 1989), 스페인어처럼 모라 강약격 리듬을 가지는 경우(Lee 1994) 강세가 마지막 중음절에 위치한다면 이는 마지막 두 번째 모라에 강세가 부여된다는 사실과도 일치한다. 그리고 경음절로 이루어진 경우 경음절은 하나의 모라로 구성되어 단어 마지막 두 번째 모라의 위치는 단어 마지막 두 번째 음절과도 일치하여 강세가 부여된다.

1) 라틴어에서 어말 두 번째 음절의 강세를 갖는 어휘들은 amí:cus, perféctum, fidé:lis 등이고 어말 세 번째 음절 강세 어휘들은 fácilis, dóminus, fé:mina 등이 있다.



따라서 경음절로 이루진 어휘 *Pedro*와 중음절 *Juan*은 위의 모라 구조에 따라 (2)와 같은 구조를 가지며, 마지막 두 개의 모라가 강약 음보(Pic, F)를 형성하고 음보의 첫 번째 모라에 해당하는 음절 핵에 강세가 부여된다.



스페인어 음절과 이중 모음과의 관계를 분석해보면 스페인어에서 존재하는 상향 이중 모음과 하향 이중 모음은 음소적으로 두 개의 음운으로 이루어진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이 둘의 운율적 내부구조를 살펴보면 서로 상이한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이중 모음들은 하나의 모음-음절의 핵-과 하나의 반모음으로 형성이 되어있지만 반모음이 음절 핵 앞에 위치할 경우 음절 두음의 성격을 갖고 음절 핵 뒤에 위치할 경우 각운의 일부로 인식이 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헤이즈(Hayes 1989)는 반모음, 단모음, 장모음의 관계를 모라의 양으로 설명하고 단모음, 장모음은 각각 하나와 두 개의 모라로 구성되지만 반모음은 두음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모라와의 관계가 없다는 논리를 펼친다. 하지만 스페인어의 경우를 살펴보면 반모음 /y/, /w/는 음절 내에서의 위치에 따라 다른 형태의 운율적 자질을 가진다. 어휘 *historia*, *Alicia*, *Rosario* 등은 모두 마지막 음절에 반모음 /y/를 포함하고 있으며 마지막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부여되는 어휘(*palabras paroxítonas*)들이다. 그리고 *convoy*, *mamey*, *virrey* 등의 어휘들도 마

지막 음절에 반모음 /y/가 나타나지만 이 어휘들은 앞의 예들과는 달리 마지막 음절에 강세가 부여되는 어휘(*palabras oxítonas*)들이다. 같은 위치의 음절에 같은 반모음이 나타나지만 전자와 후자의 어휘들은 각기 다른 운율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강세도 서로 다른 음절에 부여된다. 전자의 경우 마지막 음절에 강세가 부여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음절이 경음절이며 강세를 가질 수 있는 운율적 구조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후자의 어휘들은 마지막 음절이 중음절이기 때문에 강세를 보유할 수 있다. 모라적 관점에서 보면 두 개의 모라로 형성된 음절이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3)	Alic [y] a	virre [y]
	[μ μ]	μ [μ μ]
		\ /
	[σ σ]	<σ> [σ]
	\ /	
	F	F

또한 음절 구성 과정을 분석해보면 반모음이 음절 핵 앞에 위치할 경우 음절 말에 다른 음운의 첨가가 가능하다(*ca-m[j]on, p[y]el, c[y]en, Ma-n[w]el*). 하지만 음절 핵 뒤에 반모음이 위치할 경우 기타 음운이 첨가되어 음절을 구성하는 어휘들은 스페인어에서는 드물다(*re-ca[w]-do, pe[j]-ne, re[y]*). 이는 음절들은 최대 두 개의 모라로 형성되어야 한다는 논리와도 상통한다(Hayes 1989):

(4)	Ma n [w]u e l	*Ma n [w] e l
	[μ μ]	[μ μ μ]
	\ /	\ /
	σ	σ
	F	F

앞에서 분석한 음절 구조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스페인어의 대표적 강세 부여 제약 현상은 ‘삼 음절 창(Three Syllables Windows)’(Roca 1990)으로 강세는 단어 마지막 3음절 중 하나에 위치해야 한다는 제약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다른 제약이 추가되는데 이는 음절의 무게에 관련된 제약 현상으로 단어 마지막 세 번째 음절에 강세를 갖는 어휘들(*palabras paroparoxítonas*)의 제약 조건들이다. 스페인어에서 단어 마지막 두 번째 음절이 중음절일 경우 -음절이 자음으로 끝난 경우, 혹은 이중 모음을 포함하는 경우- 강세는 단어 마지막 세 번째 음절에 부여될 수 없다. 어휘 *restau[rán]te*, *Co[lóm]bia*, *con[dén]sa*는 모두가 가능한 운율 구조를 가지지만, **restáu[ran]te*, **Có[lom]bia*, **cón[den]sa*는 운율 구조상 불가능한 어휘들이다. 그리고 단어 마지막 음절의 운율 구조에 관한 제약도 존재하는데 마지막 음절이 이중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강세는 단어 마지막 세 번째 음절에 위치할 수 없다. 따라서 *secretá[ria]*, *farmá[cia]*, *Alí[cia]* 등은 모두 스페인어 운율 구조 원칙을 따르고 있지만, **secretá[ria]*, **fárma[cia]*, **Áli[cia]* 등은 모두 이 규약을 위반하고 있다. 이들 어휘들의 공통된 운율 구조 특징은 스페인어의 리듬인 강약 격을 준수하고 단어 마지막에 위치한 강약 음보가 강세를 보유했어야 하는 강세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

이러한 운율 구조와 관련된 제약 현상들의 공통점을 분석해보면 스페인어에서 강세는 대부분 단어 오른쪽에 위치한 중음절에 부여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음절이 존재하지 않는 어휘들의 경우 강세는 마지막 두 번째 음절, 혹은 세 번째 음절에 부여된다.

하지만 스페인어에는 *café*, *mamá*, *papá* 등의 어휘에서처럼 마지막 음절에 강세가 부여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마지막 음절의 운율 구조는 표면형에서는 경음절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기저형에서는 중음절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이다. 즉, 스페인어에서 강세 모음(*vocal tónica*)는 상대적으로 비강세 모음(*vocal átona*)에서 나타나지 않는 장음(*vocal larga*)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이나 중남미 지역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Zamora Vicente 1979, 290). 호크(Hock 1986, 453)는 안달루시

아 지방의 방언에서 음절 끝에 위치한 음소 /s/의 탈락이 그 앞에 위치한 모음의 장음화 현상을 유발시킨다는 사실을 밝힌다:

$$(5) \quad \begin{array}{ccc} \text{v e s} & \rightarrow & \text{v e []} & \rightarrow & \text{v e:} \\ | | & & | | & & | \backslash \\ \mu \mu & & \mu \mu & & \mu \mu \end{array}$$

이러한 현상은 헤이즈(Hayes 1989, 254)가 제안하고 카비츠키야(Kavistkaya 2016)가 완성시킨 보상적 장음화(alargamiento compensatorio) 현상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카비츠키야(Kavistkaya 2016, 4)는 보상적 장음화 현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6) \quad \begin{array}{l} C_1VC_2 \rightarrow CV: \\ \text{closed } \sigma, \text{ short } V \rightarrow \text{open } \sigma, \text{ long } V: \\ \text{one } \sigma \rightarrow \text{one } \sigma \end{array}$$

첫 번째 음절의 폐음절 -자음으로 끝난 음절- 의 자음이 상실되면서 단모음이 장모음으로 변화를 유발시킨다는 내용이다. 이는 음절의 한 요소가 탈락이 되었지만 그 음절의 운율 구조는 자음 탈락 현상이 발생한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사실이고, 이는 중음절의 운율 구조는 여러 음운 현상이 발생한 이후에도 이 현상들이 운율 구조의 변화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을 *café* 등의 운율 구조와 비교를 해보면, 마지막 음절은 표면형에서 경음절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 기저형에서는 중음절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강세가 부여되었고 이는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7) \quad \begin{array}{ccc} \text{c a f é []} & \rightarrow & \text{c a f é:} \\ | | & & | \backslash \\ [\mu \mu] & & [\mu \mu] \end{array}$$

결론적으로 스페인어 음절과 강세에 관한 보편적 원칙은 단어의 가장 오른쪽에 위치한 중음절이 주 강세를 보유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을 바탕으로

로 차용어에서의 운율 구조 특징을 살펴보고 모국어인 스페인어와 비교 분석해 본다.

2. 차용어의 운율 구조

일반적으로 외래어는 차용과정을 거치면서 차용 언어의 분절음 체계와 음절 체계에 적합한 형태로 음운론적 변화를 겪게 된다. 전자는 차용 언어의 분절음 목록에 없는 근원 언어의 음성형 변환을 담당하며, 후자는 차용 언어의 음절 체계에 어긋나는 근원 언어의 음성적 연쇄를 수정,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여러 형태의 외래어들이 스페인어로의 차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음절 재조정의 전형적인 예는 자음 탈락 현상(*bistec* → *bisté*, *carnet* → *carné*)과 어두에 /e/ 모음 삽입 현상(*spaguetti* → [*e*]spaguetti), 그리고 어말의 /o/ 모음 추가(*public* → *públic[o]*, *economic* → *económic[o]*) 등이 있다. 이러한 음절 재조정의 과정을 거쳐 강세의 부여가 결정된다.

본 파트에서는 스페인어에 유입된 외래어가 차용어화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음 삽입 현상, 어말 자음 탈락 현상으로 야기되는 음절 재조정의 현상을 파악해보고 강세 부여와 어떤 상호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다루어 본다. 이를 통해 차용어 전반에 대한 강세 규칙을 유출해 본다. 궁극적으로는 모국어인 스페인어와 차용어의 운율 구조의 비교, 분석을 통한 스페인어 음운 체계 내에서의 차용어 음운부 존재 유무를 밝혀본다.

1) 음절 재조정 현상

스페인어 차용된 어휘들은 강세 부여 이전에 음절 구조의 변화 현상을 유발하고 이러한 음절 구조의 재조정 과정 이후에 강세와 관련된 운율 구조가 결정된다.

- (8) Star → [e]Star
 spot → [e]spot
 spray → [e]spray

(8)의 예들은 근원어에서 /st-/ , /sp-/ , /sk-/로 시작된 어휘들로 스페인어로 차용되면서 어두에 모음 /e/ 삽입 과정을 겪었다. 스페인어에서는 앞에서 언급된 음운 결합형들이 한음절내에서 나타나는 어휘들이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스페인어로의 차용 과정에서 스페인어 음운 체계에 따라 모음 삽입 현상이 발생하고 음절 구조의 변화도 겪게 된다. 이 어휘들은 근원어에서 모두 1음절의 구조로 되어 있었지만 차용되면서 2음절의 어휘로 변화하였다. 하지만 근원어, 차용어에서 모두 중음절이 강세를 갖는 기본적인 음운 구조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9) s t a r → e s t a r
 | | | |
 [μ μ] [μ μ]

(10) públic → públic[o]
 económic → económic[o]
 tánk → tánqu[e]

(10)의 어휘들은 차용되면서 어말에 모음 /o/, /e/가 각각 첨가된 예들이다. 이들 근원어 어휘들의 공통된 특징은 음소 /k/로 끝난 어휘들로 이 음소는 스페인어의 음절 말음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다. 스페인어의 음절 말음에 가능한 자음들은 /-, -r, -s, -n, -θ, -d/ 이며 이들 이외의 음소를 어말에 포함한 근원어 어휘들은 스페인어로 차용되면서 스페인어 음운 체계에 따라 어말에 모음 삽입 과정을 겪게 된다. 이러한 삽입 과정의 결과로 이들 어휘들은 1음절은 2음절로, 2음절은 3음절로, 4음절은 5음절로 각각 음절 구조 변화를 겪는다. 하지만 근원어의 음운 구조는 그 형태를 유지하면서 어말에 하나의 모음이 첨가된 것이고 이런 모음들은 주 강세 이후에 나타나는 모음으로 스페인어에서는 대부분 약화 현상을 겪고 따라서 기본적인 음운 구조의 변화를 야기 시키지는 못한다.

(11) p u b l i c → p u b l i c <o> → p ú b l i c <o>
 | | | | | | | |
 [μ μ] <μ> [μ μ] μ [μ μ] <μ>

2) 차용어들의 운율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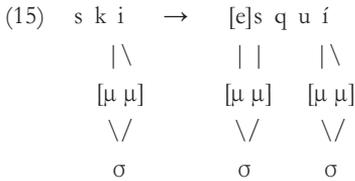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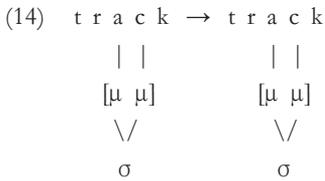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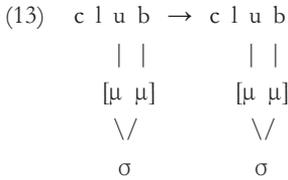
이렇게 음절 재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차용된 어휘들은 차용 이후의 음절 수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운율 구조를 갖게 된다. 이러한 구조가 근원어의 운율 구조와는 어떻게 차별되는지를 분석해보고 모국어인 스페인어의 운율 구조 준수 여부를 밝혀본다.

(1) 1음절 차용어

- (12) a. goal → gol
 golf → golf
 club → club
 gel → gel
 flash → flash
 chat → chat
 show → show
 surf → surf
- b. track → track
 van → van
 mouse → mouse
- c. spray → [e]spray
 spot → [e]spot
 sprint → [e]sprint

(12)의 예들은 모두 근원어인 영어에서 1음절로 구성된 어휘들로 스페인어로 차용되면서 1음절을 유지하거나(12a, 12b), 음절 재조정 과정을 거쳐 2음절로 변화를 겪은 어휘들(12c)이다. 그리고 (12a)의 어휘들은 스페인 왕립 한림원 사전에 등재된 어휘들로 귀화어의 특징을 지니고 있지만, (12b)의 어휘들은 아직은 외래어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어휘들이다. 이들 어휘들은 차용되기

이전의 근원어에서는 중음절 구조로 이루어진 어휘들로 차용된 이후에도 중음절의 구조가 유지되었다:



(2) 2음절 차용어

2음절 차용어들의 경우에 1음절 차용어의 경우와는 구별되는 차용과정을 겪었다. 이들 어휘들 중 일부는 스페인어의 운율 구조에 따라 변화를 일으킨 어휘들과 근원어의 운율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어휘들로 구별된다. 스페인어에 적응하면서 변화가 일어난 어휘들은 차용시기에 있어 그러지 못한 어휘들보다 오랜 기간 차용 과정을 겪었고 따라서 스페인 왕립 한림원 사전에 등재되어 있다. 이들 어휘에는 스포츠 관련 어휘들이 다수 포함 되어 있는데 이들 어휘들은 오랜 기간 차용 되면서 스페인어로의 귀화가 이루어진 어휘들이지만 기타 귀화 어휘들과는 달리 근원어의 운율 구조를 유지하면서 정착되었다, 대표적 어휘로 *fútbol*을 들 수 있는데 이 어휘는 근원어인 영어에서 중음절과 중음절이 결합된 [σ_v - σ_v]의 운율 구조로 강약 리듬을 따르고 있다. 이 어휘는 스페

인어로 차용된 후에도 스페인어의 운율 구조 원칙인 단어 마지막 중음절의 강제 현상을 위반하면서 근원어의 운율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Cf. (29)).

이와는 달리 기타 대부분의 2음절 차용어들은 차용 시기, 혹은 여러 요인들에 의해 구별되는 운율 구조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 (16) a. *júnior* → *juníor*
 guárdian → *guardián*
 méeting → *mitín, mitín*
- b. *wágon* → *vagón*
 púdding → *pudín*
 jáguar → *jaguár*

(16)의 예들은 근원어의 운율 구조와 차용된 이후의 운율 구조에 차이를 보이는 어휘들이다. 이들 어휘의 공통점은 2음절로 구성된 근원어들이 강약의 음보를 형성하고 그 음보의 첫 번째, 즉 단어 첫 번째 음절에 강세가 부여되었다. 하지만 차용된 이후 스페인어의 운율 구조에 따라 단어 마지막 중음절인 두 번째 음절로 강세의 이동이 발생하였다: [$\sigma - \sigma$] → [$\sigma - ' \sigma$]. (16a)의 경우는 근원어의 음절 구조가 [중음절 + 경음절]인 경우로 차용되면서 [경음절 + 중음절]로 변화가 발생하였고 이 중음절로 강세 이동이 이루어진 예들이다: [$' \sigma_P - \sigma_P$] → [$\sigma_L - ' \sigma_P$]:

- (17) *j ú n i o r* → *j u n i ó r*.
- | | | | |
|---------------|----------|----------|---------------|
| \ | | | |
| [$\mu \mu$] | μ | μ | [$\mu \mu$] |
| \ / | | | \ / |
| σ | σ | σ | σ |
-
- m é e t i n g* → *m í t i n* → *mitín*
- | | | | |
|---------------|---------------|-------------------------|---------------------|
| \ | | | |
| [$\mu \mu$] | $\mu < \mu >$ | [$\mu \mu$] $< \mu >$ | μ [$\mu \mu$] |
| \ / | | | \ / |
| σ | σ | $\sigma \sigma$ | $\sigma \sigma$ |

근원어의 어휘 *méeting*의 경우 그 차용 형태는 *mitin*, *mitin*으로 스페인 왕립 한림원 사전에 등재되어 있다. 근원어 *video*에서 차용된 *video*, *vidéo*와 유사한 경우로 일부 지역에서는 근원어의 운율 구조를 따라 *mítin*으로 기타 지역에서는 스페인어의 운율 구조에 따라 단어 마지막 중음절에 강세가 부여된 형태인 *mitín*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어휘도 대부분의 마지막 중음절 강세 어휘들처럼 결국에는 *mitín*으로 정착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16b)의 어휘들은 근원어에서 첫 번째 음절이 경음절로 두 번째 음절과 강약 리듬의 음보를 형성하여 첫 번째 음절에 강세 부여가 되었지만 차용되면서 (16a)와 같이 두 번째 중음절로의 강세 이동이 이루어졌다: [‘ σ_L - σ_P] → [σ_L - ’ σ_P].

(18) w á g o n → v a g ó n
 | | | | |
 [μ μ] <μ> μ [μ μ]
 \ / | | \ /
 σ σ σ σ

(19) *bárman* → *bárman* (→ ?*barmán*) ‘camarero’
cámping → *cámping* (→ ?*campín*) ‘campamento’
párking → *párking* (→ ?*parquín*) ‘aparcamiento’
dribbling → *dribbling* (→ ?*driblín*) ‘regate’

(19) 어휘들의 특징은 근원어의 운율 구조가 차용 과정 이후에도 그래도 유지된 예들이다. 이들 어휘들은 스페인어에 차용되어 사용된 기간이 (17)에서 언급한 어휘들 보다는 짧고 따라서 아직은 스페인어로의 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외래어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사용되는 경우이다. 이들 어휘에는 같은 의미에 해당되는 스페인어 단어들 존재하는 경우로 아직은 일부 사용자들, 특히 언론에서만 주로 사용되고 있지만 차후에는 스페인어로 귀화 가능한 어휘들이고 이들의 어휘도 (16)의 예처럼 귀화 이후에는 스페인어의 운율 구조를 준수하여 마지막 중음절에 강세 부여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 σ - σ] → [‘ σ - σ] (→ ?[σ - ’ σ]).

(20) b á r m a n → b á r m a n (→ ?b a r m á n)

\					
[μ μ]	μ <μ>	[μ μ]	[μ μ]	[μ μ]	[μ μ]
∨		∨	∨	∨	∨
σ	σ	σ	σ	σ	σ

(21) whísky → güísqüi
 gróggý → grógu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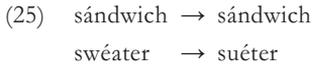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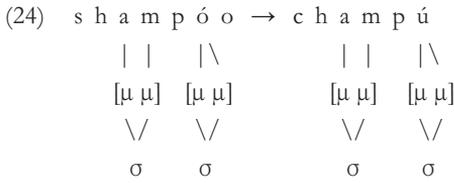
(21)의 어휘에서 나타난 근원어와 차용어의 운율 구조의 특징들은 이미 오랜 기간 차용 과정을 거쳐 스페인어로의 귀화가 이루어진 어휘이면서 근원어의 운율 특징들이 그대로 유지된 경우이다. 이는 근원어의 운율 특징이 모국어인 스페인어의 운율 규칙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원어에서 2음절 어휘 중 첫 번째 어휘에 강세가 부여되었는데 이 어휘들은 [중음절 + 경음절]의 구조를 갖고 있고 차용 과정을 거친 이후에도 첫 번째 음절의 중음절 강세 원칙에 따라 강세가 그대로 유지된 경우이다: [‘σ_P - σ_L] → [‘σ_P - σ_L].

(22) w h í s k y → g ü í s q u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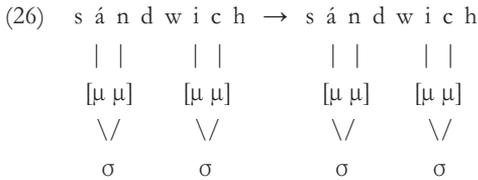
[μ μ]	<μ>	[μ μ]	<μ>
∨		∨	
σ	σ	σ	σ

(23) shampóo → champú

어휘 *shampóo*의 경우 이 어휘는 근원어와 차용어에서 [중음절 + 중음절]의 운율 구조로 형성되어 있으며 어말 중음절 강세 부여 원칙에 따라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부여된 어휘이다. 이 어휘도 (21)의 예처럼 스페인어로 차용 이전의 운율 구조가 모국어 운율 구조 원칙을 따르고 있어 근원어의 운율 구조가 차용어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σ_P - ‘σ_P] → [σ_P - ‘σ_P].



어휘 *sandwich*의 경우 아직은 귀화되지 않은 (19)의 어휘들 보다는 차용 시기에 차이를 보이고 있고 대부분의 스페인어 사용자들이 모국어처럼 인식하여 스페인 왕립 한림원 사전에 등재된 귀화어의 성격을 갖고 있다. 하지만 운율 구조에 있어서는 스페인어의 구조를 따르지 않고 있다. 이 어휘는 귀화된 어휘에서 [중음절 + 중음절]의 구조를 갖고 있고 스페인어에서의 운율 규칙인 어말 중음절 강제 부여를 위배하고 있다. 귀화어 일 경우 두 번째 중음절인 [wich]에 강제 부여가 이루어져야 되지만 근원어에서의 첫 번째 음절 [sand]의 강세가 유지되면서 (19)의 어휘처럼 근원어의 운율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σ_P - σ_P] → [‘σ_P - σ_P].



*sandwich*의 경우처럼 차용시기와 운율 구조와의 상관관계에도 이러한 예외 현상이 나타난다. 어휘 *sweater*의 경우도 이미 스페인 왕립 한림원 사전에 *suéter*로 등재되어 스페인어로의 귀화가 이루어졌지만 기존의 귀화어들과는 다른 운율적 현상을 보여준다. 근원어에서 이 어휘의 운율 구조는 [경음절 + 경음절]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근원어인 영어의 강세 알고리즘에 따라 첫 번째 경음절에 강세가 부여되었다. 스페인어로의 차용 과정을 거치면서 음절 구조는 [경음

절 + 중음절로 변화 현상이 나타났고 기타 귀화어들 처럼 스페인어 운율 구조에 맞게 마지막 중음절에 강세 부여가 이루어져야 되지만 근원어의 운율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첫 번째 경음절에 강세가 부여되었다. 즉, 앞에서 제시한 이미 귀화된 어휘들은 모국어인 스페인어의 운율 구조를 따르고 있다는 포괄적 주장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준다.

(27)	s	w	é	a	t	e	r	→	s	u	é	t	e	r

이러한 현상에 대한 추정 가능한 설명은 기존의 귀화어들은 공통적으로 그 의미에 해당하는 해당 스페인어가 존재하지 않아서 쉽게 정착하여 사용되고 있지만 *suéter*의 경우 이미 같은 의미인 스페인어 *jersey*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고 *sandwich*의 경우 *bocadillo* 어휘가 존재하고 있어서 아직은 대부분의 스페인어 사용자들이 *suéter*라는 용어보다 어휘 *jersey*를, *sandwich*보다는 *bocadillo* 용어를 더 즐겨 사용하기 때문에 외래어라는 인식이 강하여 스페인어의 운율 구조를 따르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스페인 왕립 한림원 사전에 등재되어는 있지만 외래어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한 경우의 예는 스포츠 관련 용어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스포츠 관련 어휘들은 스페인 왕립 한림원 사전에 등재되어 귀화어로 분류되고 있지만 이 어휘들을 주로 사용하는 계층은 언론계 종사자들로 이들은 근원어의 운율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스페인어의 운율 규칙과는 상관없이 근원어의 특징을 유지하면서 발음하고 있다. 대표적인 어휘로 *fútbol*의 예를 들 수 있다. 이 어휘는 이미 스페인의 축구 역사와 함께 차용된 어휘이다. 역시 기타 스포츠 관련 어휘들처럼 스페인 왕립 한림원 사전에 등재되어 있다. 이 어휘에도 *balompié*라는 스페인어 고유 어휘가 존재하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스페인어 사용자들은 *fútbol*을 더 즐겨 사용하고 있고 -이 역시 언론의 영향으로- 근

원어인 영어의 운율 구조를 유지하면서 귀화어 보다는 차용된 외래어와 같은 운율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 (28) fútbol → fútbol
 córner → córner
 básieball → béisbol
 pláyoff → pláyoff

- (29) f ó o t b a l l → f ú t b o l
 | | | \ | | | |
 [μ μ] [μ μ] <μ> [μ μ] [μμ]
 \ \ \ \
 σ σ σ σ

(3) 3음절 이상의 차용어

앞에서 분석한 2음절 차용어처럼 3음절 차용어들도 유사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 (30) hámburger → hamburguésa
 déodorante → deodoránte
 detéctive → detectíve
 célulaar → celulár

(30)의 예들은 차용 시기가 오래된 귀화어들로 이미 스페인 왕립 한림원 사전에 등재되어 있고 근원어의 운율 구조는 이미 상실되어 모국어의 운율 구조 특징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어휘들이다. 즉, 어휘들의 마지막 중음절 혹은 어말 두 번째 경음절에 강세가 부여되었다. 근원어 *hámburger*는 차용된 이후에 *hamburguésa*로 음운 변화를 겪었는데 여기에는 어말에 /a/ 모음이 첨가되어 음절 재조정의 과정이 먼저 발생되었다. 3음절의 어휘가 4음절의 어휘로 변화가 일어났고 근원어의 첫 음절 강세가 차용된 후 세 번째 음절로 강세 이동이 이루어졌다. 이는 스페인어 운율 규칙에 따라 마지막 두 개의 음절이 하나의 음보를 형성하고 그 첫 번째 요소에 강세가 부여되었기 때문이다. 근원어인 영어의 경

우 음보는 음절 단위로 이루어지지만 스페인어는 모라 단위로 음보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Lee 1994):

$$\begin{array}{ccccccc}
 (31) & h & \acute{a} & m & b & u & r & g & e & r & \rightarrow & h & a & m & b & u & r & g & u & \acute{e} & s & a \\
 & | & | & | \backslash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u \mu] & [\mu \mu] & <\mu > & & & [\mu \mu] & [\mu \mu] & & [\mu \mu] & & & & & & & & & & & & & \\
 & \vee & \vee & | & & & \vee & \vee & & | & | & & & & & & & & & & & & \\
 & [\sigma & \sigma] & <\sigma > & & & \sigma & \sigma & & \sigma & \sigma & & & & & & & & & & & & &
 \end{array}$$

차용 어휘 *detective*의 경우 근원어의 음운 형태가 차용된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어 있지만 운율 구조의 차이로 인한 강세 이동의 변화가 일어난 어휘이다. 근원어에서 3음절로 구성된 어휘가 차용된 후 4음절로의 변화가 일어났고 근원어와 차용어에서 모두 강약 리듬의 음보를 구성해 어말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부여되었다:

$$\begin{array}{ccccccc}
 (32) & d & e & t & \acute{e} & c & t & i & v & e & \rightarrow & d & e & t & e & c & t & \acute{i} & v & 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u & [\mu \mu] & [\mu \mu] & & & \mu & [\mu \mu] & [\mu \mu] & & & & & & & & & & & & & & \\
 & | & \vee & \vee & & & | & \vee & | & | & & & & & & & & & & & & & \\
 & \sigma & \sigma & \sigma & & & \sigma & \sigma & \sigma & \sigma & & & & & & & & & & & & & &
 \end{array}$$

$$\begin{array}{ll}
 (33) & b \acute{a} s k e t b a l l \rightarrow b \acute{a} s q u e t b o l \\
 & p \acute{e} n a l t y \rightarrow p e n \acute{a} l t i
 \end{array}$$

(33)의 경우 두 어휘 모두 스페인 왕립 한림원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스포츠 관련 귀화어 들이다. 하지만 이 둘의 경우는 차용 과정에서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어휘 *pénalty*의 경우 기타 귀화어 어휘들과 마찬가지로 스페인어의 운율 구조를 따라 *penálti*로 차용되었다. 근원어에서는 어말 세 번째 음절에 강세가 부여되었지만 스페인어로 차용된 후 어말 두 번째 중음절에 강세가 부여되면서 스페인어의 운율 규칙을 준수했다:

의 차용어 음운부에 관한 사항은 아직은 스페인어로의 완전한 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외래어에만 해당되는 경우로 여기에 속한 어휘들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스페인어 음운부로의 완전한 귀화가 이루어진다고 예상된다. 그리고 여기에 첨가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은 스페인어 사용자들의 모국어에 대한 강한 애착을 들 수 있다. 차용된 어휘들이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외래어로 취급되어 독자적인 음운부로 분류되는 경우는 차용된 어휘와 같은 의미의 또 다른 어휘의 존재 유무 때문이다.

차용 시기가 오래되어 이미 귀화어로 취급된 어휘들은 스페인 왕립 한림원 사전에 등재되어 있고 이런 어휘들은 스페인어의 운율 규칙에 따라 강세가 부여되었다. 하지만 아직은 외래어로 인정된 어휘들은 근원어의 운율 구조가 유지되어 차용되고 있으며 일부 귀화어의 형태로 인정받은 어휘들도 외래어의 형태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어휘들도 차후에는 스페인어로의 완전한 귀화가 이루어져 스페인어의 운율 구조 원칙을 따르면서 스페인 왕립 한림원 사전 등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III. 결론

본 연구에서는 스페인어에 차용된 영어 어휘들의 운율적 특징을 살펴보고 차용과정에서 일어나는 운율적 제약 현상을 분석하였다. 한 언어가 다른 언어로부터 어휘를 차용하는 경우 근원어의 음성적, 운율적 특징을 가능한 유지하려는 경향, 차용어의 음운 현상에 따라 근원어의 어휘가 지닌 음성적 특징은 상실되거나 변화를 일으키는 경향 등이 존재한다. 스페인어가 영어로부터 어휘를 차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음성적 변화 현상은 모음 추가에 따른 음절 구조 재조정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강세 이동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모국어인 스페인어의 운율 구조 특징을 살펴보고 차용 과정에서 일어나는 음절 구조의 재조정 과정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음절 구조 변화에 따른 운율 구조의 변화 현

상을 차용어의 음절 구조에 따라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본고에서 기본적으로 분석해본 이론 중의 하나는 실버만(Silverman 1992)이 주장한 차용어 음운부의 독자적인 존재 유무이다. 스페인어에 차용된 영어 어휘들은 모국어인 스페인어의 운율 형태를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일부 근원어인 영어의 운율 구조를 유지하는 어휘들도 존재하였지만 이들 어휘의 귀화 여부는 차용된 이후의 시기와 관련이 있었으며 차용 기간이 오래된 어휘라 할지라도 기존의 스페인어 해당 어휘가 존재하는 경우는 스페인어로의 완전한 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외래어로 취급되면서 근원어의 운율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스페인어의 경우 차용 어휘들만을 위한 독자적인 음운부는 그 존재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며 차용 이후에는 스페인어의 음운부에 도입되어 스페인어에 적용되는 음운적, 운율적 제약 현상을 준수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명숙(2003), 「영어 차용어 연구」, 영어학연구, Vol.15, pp.1-18.
- 이봉형(2013), 『차용어 음운론』, 한국 문화사.
- 이용성(1994), 「모라 이론에서의 중자음」, 한국 언어 과학회, Vol. 1, pp.181-224.
- Channesian Saboundjian, Maria(2004), “La asignación del acento en castellano”, Tesis Doctoral, Universidad Autónoma de Barcelona.
- Canellada, M. J. and M. J. Kuhlmann(1987), *Pronunciación del español*, Madrid: Editorial Castalia.
- Carreira, M.(1990), “The Diphthongs of Spanish: stress, syllabification and alternations”, Tesis doctoral, University of Illinois.
- Chang, C.(2008). “Phonetics vs. Phonology in Loanword Adaptation: Revisiting the role of bilingual”, *UC Berkeley Phonology Lab Annual Report*.
- Chomsky, N and M. Halle(1968), *The Sound Pattern of English*, New York: Harper and Row,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D’Introno, F. et al.(1995), *Fonética y fonología actual del español*, Madrid: Ediciones Cátedra.

- Enriquez, E. V. et al. (1989), “La percepción del acento en español”, *Linguística Española Actual*, Vol. 11, pp. 241-269.
- Halle, M. and J-R Vergnaud (1987), *An Essay on Stress*, Cambridge: MIT Press.
- Harris, J.W. (1969), *Spanish Phonology*, Cambridge: MIT Press.
- _____ (1983), *Syllable Structure and Stress in Spanish: an nonlinear analysis*, Cambridge: MIT Press.
- _____ (1987), “The accentual patterns of verb paradigms in Spanish”,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Vol. 5, pp. 61-69.
- _____ (1991), “With respect to metrical constituents in Spanish”, *Current Studies in Spanish Linguistics*, pp. 447-473.
- Hayes, B. (1980), *A Metrical Analysis in Stress Rules*, IULC: MIT Press.
- _____ (1985), “Iambic vs. trochaic rhythm in stress rule”, *Proceedings of the XI annual meeting of the Berkeley Linguistics Society*, pp. 429-446.
- _____ (1989), “Compensatory lengthening in moraic phonology”, *Linguistic Inquiry*, Vol. 20, pp. 253-306.
- _____ (1995), *Metrical Stress Theory: Principles and Case Studie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ualde, J. (2014), *Los sonidos del españo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yman, Larry, H. (1985), *The Theory of Phonological Weight*, Dordrecht: Foris Publications.
- Kager, R. (1989), *A metrical theory of stress and destressing in English and Dutch*, Dordrecht: Foris Publications.
- Kavitskaya, D. (2016), *Compensatory lengthening : phonetics, phonology, diachrony*, London: Routledge.
- Kenstowicz (2003), “The role of perception in loanword phonology”, *Studies in African Linguistics*, Vol. 32, pp. 95-112.
- Lee, S. Y. (1994), “Aspectos del acento en español”, Tesis Doctoral, Universidad Complutense de Madrid.
- Liberman, M. Y. (1977), “On Stress and Linguistic Rhythm”, *Linguistic Inquiry*, Vol. 8, pp. 249-336.
- McCarthy, J. and B. Hayes (2003), *Metrical Phonology*, Amhers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 McCarthy, J. and A. Prince(1989), *Prosodic Morphology*, ms,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and Brandeis University.
- Monroy Casas, R.(1980), *Aspectos fonéticos de las vocales españolas*, Madrid: Sociedad General Española de Librería,
- Navarro Tomas, T.(1972), *Manual de Pronunciacion Española*, Madrid: CSIC.
- Nespor, Marina, and I. Vogel(1986), *Prosodic phonology*, Dordrecht: Foris.
- Quilis, Antonio(1985), *El comentario fonológico y fonético de textos*, Madrid: Arco Libros,
- Real Academia Española(2012), *Nueva Gramática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Espasa-Calpe.
- _____ (2014), *Diccionario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Espasa-Calpe, 23ª ed.
- Roca, I.(1986), “Secondary stress and metrical rhythm”, *Phonology Yearbook*, Vol. 3, pp. 41-70.
- _____ (1988), “Theoretical implications of Spanish word stress”, *Linguistic Inquiry*, Vol. 19, pp. 393-423.
- _____ (1990), “Morphology and verbal stress in Spanish”, *Probus*, Vol. 2, pp. 321-350.
- _____ (1999), “Stress in the Romance Languages”, H. van der Hulst(ed.), *Word Prosodic Systems in the Languages of Europe*, Mouton de Gruyter, pp. 659-811.
- Selkirk, E.(1984), *Phonology and syntax: the relation between sound and structure*, Cambridge: MIT Press,
- _____ (1986), “On derived domains in sentence phonology”, *Phonology Year Book*, Vol. 3, pp. 71-105.
- Silverman, D.(1992). “Multiple scansions in Loanword Phonology: evidence from Cantonese”, *Phonology*, Vol. 9, pp. 289-328.

이수열

한국외국어대학교
luzlee@naver.com

논문투고일: 2018년 7월 26일
심사완료일: 2018년 8월 16일
게재확정일: 2018년 8월 27일

Spanish loanwords and their prosodic restriction

Soo-Yeol Le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Lee, Soo-Yeol(2018), "Spanish loanwords and their prosodic restriction", *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 29(2), 157-181.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prosodic structure of Spanish loanwords borrowed from English and analyze their prosodic features. When one language borrows vocabulary from another, it tends to maintain the prosodic character of the original word, and according to the prosodic constraints of the borrowing language, the prosodic features of the loanwords are lost or subject to change. Among the various phonological changes that occur when Spanish borrows vocabulary from English are the vowel insertion and word-final consonant elimination, and theses process of change leads to a change in the structure of the syllable, and eventually a change in the rhyme structure, such as the movement of stres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reveals the characteristics of rhyme structure in Spanish, which is the mother tongue, and analyzes the changes in rhyme structure that can appear according to the borrowing process. This analysis reveals the existence of a loanwords phonology which can be applied to the Spanish loanwords, and shows that the rhythmic structure change of the vocabulary which has already been used in the Spanish language is applied to the vocabulary used as a foreign language concept.

Key words Spanish loanwords, Spanish loanword phonology, Prosodic structure of the Spanish loanwords, Stress system of the Spanish loanwords